

경제동향

- 요약
- 경기 생산/출하·재고 순환/소비/물가
- 고용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률
- 부동산 건설경기/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
- 금융 시중자금사정/창업동향/어음부도율/
신용보증동향/수출입동향

<p>경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제조업부문 6월 이후 두 자리 마이너스 증가 기록 - 10월 서울지역의 산업생산지수는 106.2로 전년동월대비 10.2% 큰폭 감소 ○ 서울 대형종합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2.9% 증가 - 10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백화점부문이 3.2% 증가하고 대형마트부문이 2.4% 증가 - 판매액 증가는 고가품 및 판매액 상승 등의 원인인 것으로 예측됨 ○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4.2% 상승 - 11월 서울의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2% 하락, 전년동월대비 4.2% 상승. 전도시 평균인 -0.3%보다 소폭 하락 - 전월에 비하여 식료품, 주류, 통신 부문은 보험, 의복, 주거, 가구잡기 등은 상승, 석유 등 교통부문 하락, 전체적으로 0.2% 하락
<p>고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7월 이후 마이너스 증가율 기록 - 11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6%p 감소한 61.5%로 남자는 73.2%, 여자는 50.4% ○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1.6% 감소 - 11월 서울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81천명(-1.6%) 감소한 4,897천명 -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40천명(-1.4%), 여자는 41천명(-1.9%)으로 남자는 2,811천명, 여자는 2,086으로 각각 감소함 ○ 서울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0.1%p 감소한 3.8% 기록 - 11월 서울의 실업률은 3.8%로 전월동월대비 감소, 남자는 4.6%, 여자는 2.8%로 전년동월대비 0.4%p, 0.8%p 각각 하락
<p>부동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 기준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 10월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926,809백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6.8% 감소 - 공공부문은 공기업의 신규 주택 및 사무실 부문의 발주가 대폭 증가, 민간부문은 주택 개발공사 부문 및 사무실 공사의 발주 감소 ○ 11월 기준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크게 하락 - 서울은 전월대비 크게(-0.6%) 하락하여 지난달에 이어 연속 하락세 - 강북지역은 0.3% 하락, 강남지역은 전월에 비해 0.8% 하락 ○ 11월 기준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크게 하락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크게(-0.7%) 하락 - 강북지역은 0.5% 하락하였고, 강남지역은 0.9% 하락
<p>금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전월대비 증가 - 10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494조 5,701억원 규모 ○ 10월 기준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425개로 전년동월대비 15.2%(255개) 감소 ○ 10월 기준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111개로 전월보다 31개 증가 ○ 11월 서울시 전년동월대비 수입과 수출은 모두 감소 - 11월 서울의 수출은 23.7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5.1% 감소. 수출 1순위는 편직물, 다음은 반도체, 철강관 및 철강선 등의 순 - 11월 서울의 수입은 55.9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12.8%의 감소율을 기록. 수입 1순위 위도 반도체인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컴퓨터, 항공기 및 부품 순

| 생 · 산 |

10월 경기는 제조업부문 전년동월대비 감소 증가

■ 10월 산업생산은 내수부진 및 수출둔화 등으로 마이너스로 반전

- 10월 중 산업생산은 내수부진 및 수출둔화 등으로 부진
-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등은 증가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 영상음향통신 등이 부진하여 전월대 2.3% 감소
- 전년동월대비로는 반도체 및 부품, 영상음향통신 등의 부진으로 2.4% 감소, 조업일 수 조저 지수로는 1.8% 감소
- 서비스업 생산은 부동산 및 임대업,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등에서 감소하여 전월대비 0.5% 증가
- 전년동월대비로는 부동산 및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은 부진 하였으나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금융 및 보험업 등에서 증가하여 1.0%로 소폭 증가

■ 서울 제조업부문 6월 이후 두 자리 마이너스 증가 기록

- 2008년 10월 서울지역의 산업생산지수는 106.2(NSA, 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10.2% 감소
- 업종별로 보면 고무 및 플라스틱 등에서 증가한 반면, 기계장비, 의약품 등에서 감소

■ 중공업 부문 서울의 제조업 산업, 생산 마이너스 증가세 주도

- 중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24.5% 감소
-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1.8% 소폭 감소
- 세부 업종별로 보면 고무 및 플라스틱 부문은 증가한 반면, 기계장비, 의약품 등에서는 감소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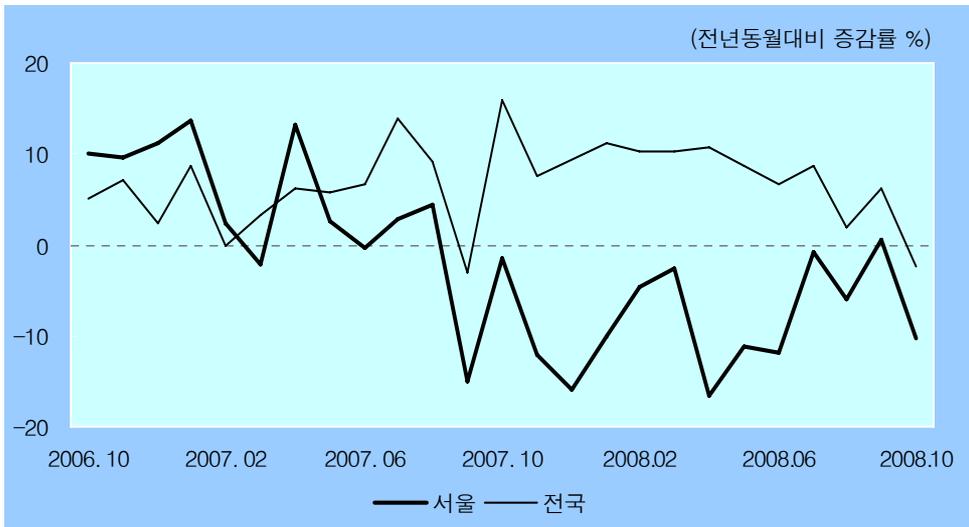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10월	6월	7월	8월p	9월p	10월p	
전 년 대 비	전국	15.9 (15.3)	6.6 (-2.5)	8.7 (0.5)	1.9 (-6.2)	6.2 (2.3)	-2.4 (5.9)
	서울 (제조업)	-1.5 (14.0)	-11.9 (-7.1)	-0.8 (14.0)	-6.0 (-0.9)	0.5 (6.6)	-10.3 (1.8)
	중공업	-12.5 (18.4)	-23.7 (-2.4)	-19.0 (2.8)	-14.3 (7.0)	-6.0 (5.2)	-24.5 (-4.9)
	경공업	6.7 (11.6)	-3.7 (-9.7)	10.8 (20.2)	-0.9 (-4.6)	4.2 (7.4)	-1.8 (5.2)

주: ()안은 전월비임,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5=100), 서울의 전월비는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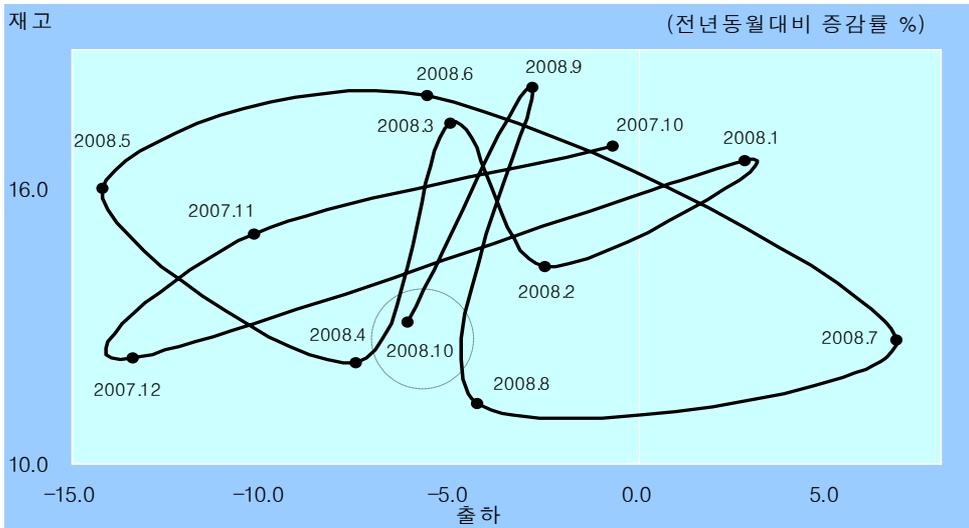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출하 · 재고 순환 |

10월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조정 단계

■ 서울지역 경기침체 가시화로 급격한 재고조정 단계 진입

- 업종별로 보면 기계장비 등에서 감소한 반면, 의복 및 모피, 1차금속, 식료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등에서 증가
- 출하 및 재고 모두 전년동월비 감소하여 9월대비 재고조정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Box>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 서울의 경공업 부문 22.3% 감소로 제조업부문 재고율 전반적으로 감소세

- 10월 전국 제조업부문 재고율은 118.8%로 전월대비 3.6%p 증가하였고, 서울 제조업부문의 재고율은 143.6%로 전월대비 12.5%p 감소함
- 업종별로 보면 기계장비 등에서 감소한 반면 의복 및 모피, 식료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그리고 섬유제품 등에서 증가
- 서울의 산업부문별 재고율은 중공업부문이 전월대비 9.8%p 증가한 167.7%를 나타냈고, 경공업부문은 22.3%p 감소한 131.2%로 나타남

〈표〉 서울과 전국의 제조업 재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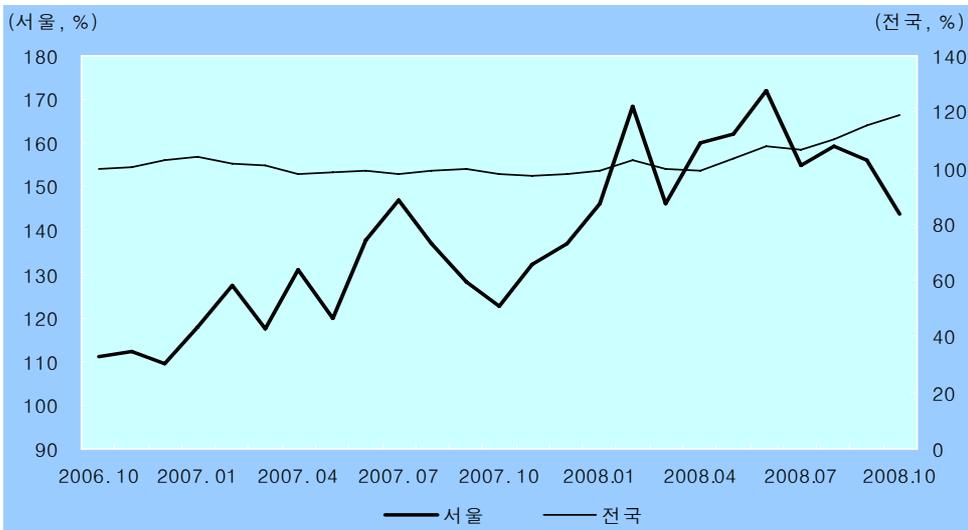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전월대비 증감	
	10월	6월	7월	8월p	9월p	10월p		
재고율	전국	97.7	107.8	106.4	110	115.2	118.8	3.6
	서울	122.7	172.1	155.1	159.4	156.1	143.6	-12.5
	중공업	120.9	170.8	175.9	159.6	157.9	167.7	9.8
	경공업	123.3	171.4	143.6	157.3	153.5	131.2	-22.3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 ÷ 출하 원지수) × 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률 나타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소 · 비 |

10월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소폭 증가

■ 전국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10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에 비해 1.6% 증가함
- 전년동월대비 의약품·의료용품, 화장품 및 비누, 식료품 등 비내구재는 증가한 반면 승용차, 가전제품·컴퓨터·통신기기 등의 내구재는 감소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고가품 및 판매액 상승으로 전년동월대비 소폭 증가

- 10월 대형종합소매점 판매액은 1조4,494억으로 전년동월대비 2.9% 증가
- 백화점의 경우 전년 동월대비로 가구, 계절의류 등과 같은 고가품 판매액 증가로 3.2% 증가
- 대형마트는 전년 동월대비로는 점포신설 및 가방, 주방용품, 화장품 판매액 상승으로 2.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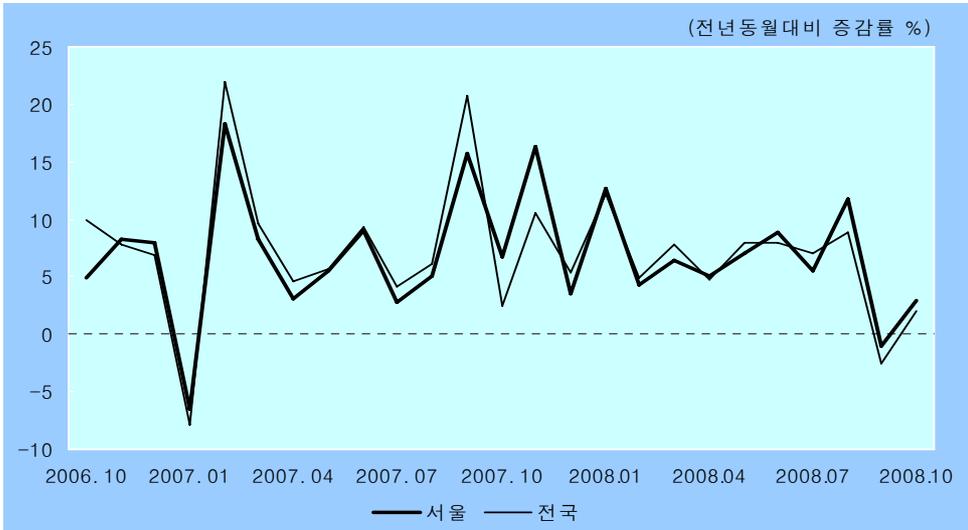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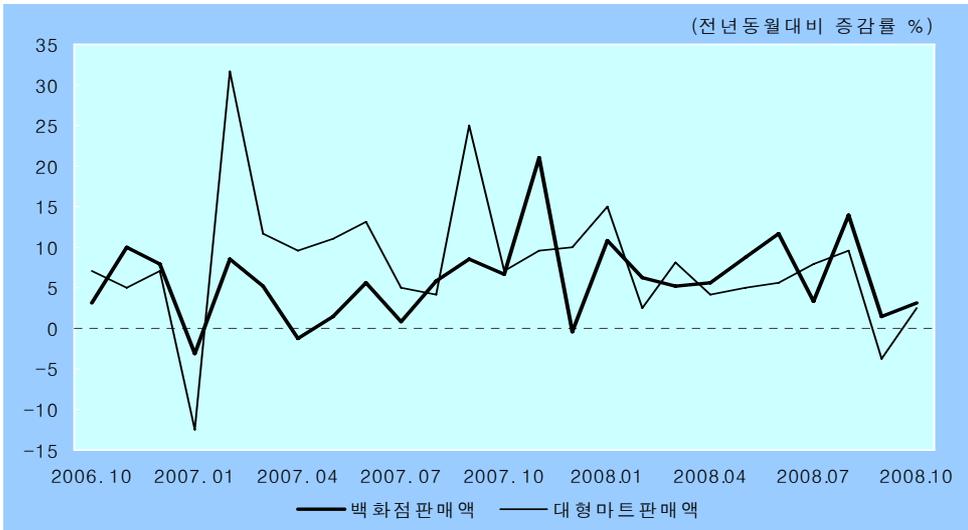
구 분	2007년		2008년				
	10월	6월	7월	8월p	9월p	10월p	
판매액	전국	4090.3 (2.5)	3954.0 (7.9)	4054.8 (7.1)	3877.2 (8.8)	4375.3 (-2.5)	4171.3 (2.0)
	서울	1408.6 (6.8)	1333.8 (8.8)	1298.8 (5.5)	1254.9 (11.7)	1444.2 (-1.0)	1449.4 (2.9)
	백화점	833.6 (6.6)	731.1 (11.6)	680.9 (3.4)	639.4 (14.0)	784.2 (1.4)	860.5 (3.2)
	대형마트 (할인점)	574.9 (7.1)	602.6 (5.6)	617.8 (7.9)	615.4 (9.5)	660.0 (-3.7)	588.9 (2.4)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²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물 · 가 |

11월 서울의 소비자 물가 7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상승세 둔화

■ 전국의 소비자 물가 전년동월대비 4.5% 상승

-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 하락, 전년동월대비 4.5%, 전년동기대비 4.7% 상승
- 전월에 비하여 주류담배, 통신, 기타잡비 부문은 전월대비 포함이나 교양오락(1.0%), 의복신발(0.9%), 가구집가사용품(0.6%) 등은 전월대비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8% 하락, 전년동월대비 4.0% 상승

■ 서울의 소비자 물가 전년동월대비 4.2% 상승

- 11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0.2으로 전월대비 0.2% 하락 반면, 전년동월대비 4.2% 상승
- 주요도시의 전월대비 소비자물가는 서울이 전도시 평균(-0.3%)보다 소폭 하락
- 부산, 대전, 경기도는 전도시 평균과 같으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강원 등 그 밖의 도시는 전도시 평균보다 크게 하락
- 전월에 비하여 식료품·비주류음료, 주류·담배, 통신 부문은 포함이며, 의복·신발, 주거 및 수도·광열, 가구집기·가사용품, 보건의료 등 그밖의 모든 부문이 상승 하였으나, 석유류 등이 포함된 교통부문이 하락하여 전체적으로 전월대비 0.2% 하락

■ 생활물가 및 신선식품, 2달 연속 지속적 하락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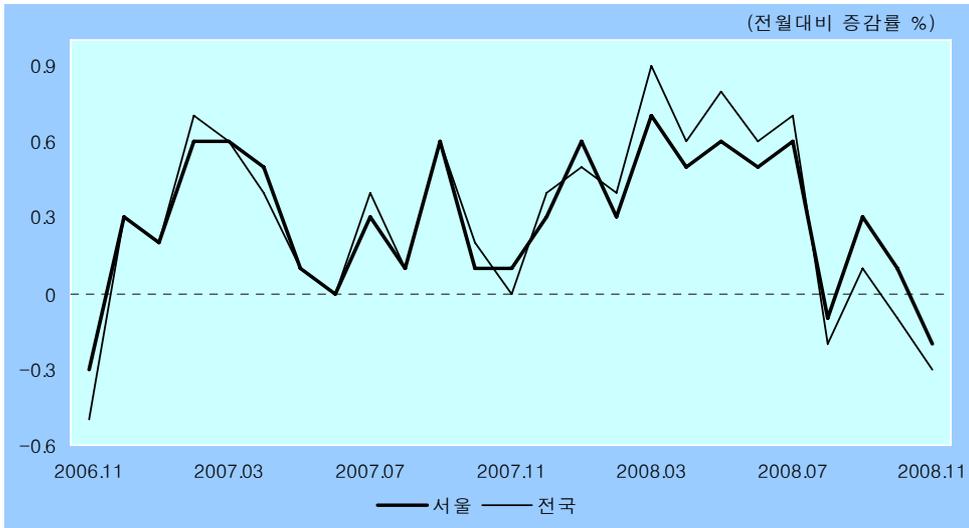
-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4%(전국:-0.8%)로 하락, 전년동월대비 3.6%(전국:4.0%) 상승
-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2.0%(전국:-1.2%), 전년 동월대비 11.7%(전국:-9.7%) 각각 하락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5=100.0,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11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비	전국	0.0 (3.5)	0.6 (5.5)	0.7 (5.9)	-0.2 (5.6)	0.1 (5.1)	-0.1 (4.8)	-0.3 (4.5)	
	서울	0.1 (3.4)	0.5 (4.6)	0.6 (5.0)	-0.1 (4.8)	0.3 (4.5)	0.1 (4.4)	-0.2 (4.2)	
	상품 성질별	상품	0.0 (4.1)	0.9 (7.1)	1.4 (8.0)	-0.5 (7.4)	0.4 (6.4)	-0.1 (6.0)	-1.1 (4.9)
		서비스	0.2 (3.1)	0.3 (3.4)	0.3 (3.5)	0.2 (3.6)	0.1 (3.4)	0.2 (3.6)	0.4 (3.8)
	생활물가	0.0 (4.7)	0.6 (5.5)	0.6 (5.7)	-0.3 (5.5)	0.1 (4.6)	-0.3 (4.1)	-0.4 (3.6)	
	신선식품	-6.3 (10.7)	-5.4 (-7.2)	3.5 (-7.5)	4.7 (-3.3)	-1.7 (-12.7)	-2.0 (-15.6)	-2.0 (-11.7)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2005=100)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

11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하락

■ 전국의 경제활동참가율 8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하락 추세

- 11월 15세 이상인구는 39,79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51천명(1.1%)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95천명(0.4%)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310천명으로 87천명(0.6%)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10,256천명으로 7천명(0.1%)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1.8%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하였음

■ 서울 경제활동참가율 7월 이후 마이너스 증가율 기록

- 11월 15세 이상 인구는 8,28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8천명(0.8%)이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5,09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1천명(-1.8%)이 감소
- 경제활동참가율은 61.5%로 전년동월대비 1.6%p 하락

〈표〉 경제활동인구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11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경제활동 인구	전국	1.0 (0.0)	0.5 (0.1)	0.5 (-0.2)	0.7 (-1.2)	0.5 (0.3)	0.4 (0.5)	0.4 (-0.1)
	서울	0.2 (0.0)	0.0 (-0.1)	-0.3 (0.2)	-0.1 (-0.5)	-1.3 (-0.7)	-1.7 (-0.2)	-1.8 (-0.1)
	남자	0.7 (0.2)	-0.3 (-0.4)	-0.4 (0.6)	-0.4 (-0.5)	-0.9 (-0.9)	-0.9 (-0.2)	-1.0 (0.2)
	여자	-0.5 (-0.2)	0.3 (0.4)	-0.2 (-0.3)	0.3 (-0.6)	-1.7 (-0.4)	-2.7 (-0.2)	-2.8 (-0.3)
경제활동 참가율	전국	62.2	62.5	62.3	61.5	61.6	61.9	61.8
	서울	63.1	62.5	62.6	62.2	61.7	61.6	61.5
	남자	74.7	74.1	74.5	74.1	73.4	73.2	73.2
	여자	52.2	51.5	51.3	50.9	50.7	50.6	50.4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취·업·자 |

11월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1.6%로 큰 폭 감소

■ 11월 전국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0.3%로 미미한 증가

- 11월 취업자는 23,81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8천명(0.3%)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3,81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7천명(0.5%) 증가하였고, 여자는 10,006천명으로 11천명(0.1%) 증가하였음
- 연령계층별로 보면 30대 이하에서 감소한 반면, 그 외 연령계층에서는 증가

■ 11월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1.6%로 10월 이후 가장 큰 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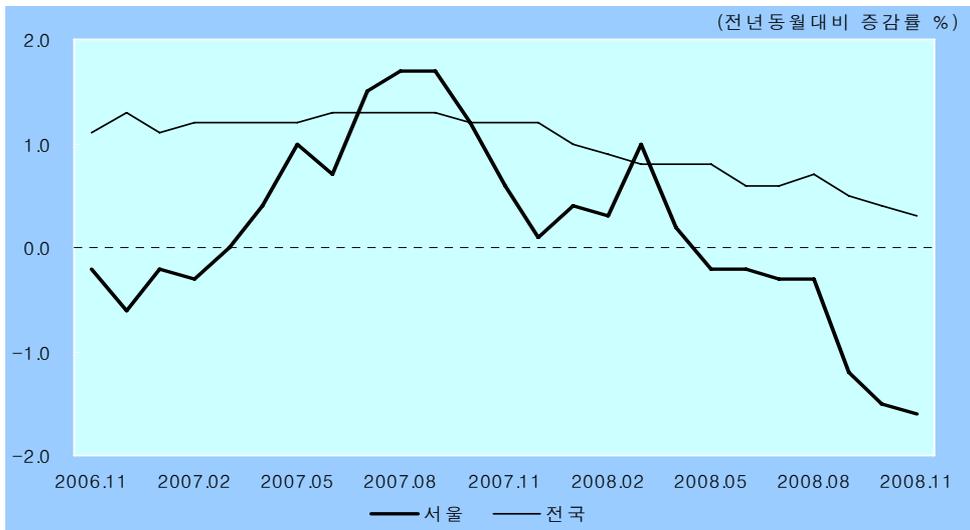
- 11월 취업자는 4,89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1천명(-1.6%)이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11천명, 여자는 2,08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40천명(-1.4%), 여자는 41천명(-1.9%)이 각각 감소
- 산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25천명(1.3%)이 증가하였고, 제조업 61천명(-9.3%), 전기·운수·통신·금융업 24천명(-4.1%), 건설업 9천명(-2.1%), 도소매·음식숙박업 13천명(-0.9%)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농림어업은 동일

〈표〉 연령별 취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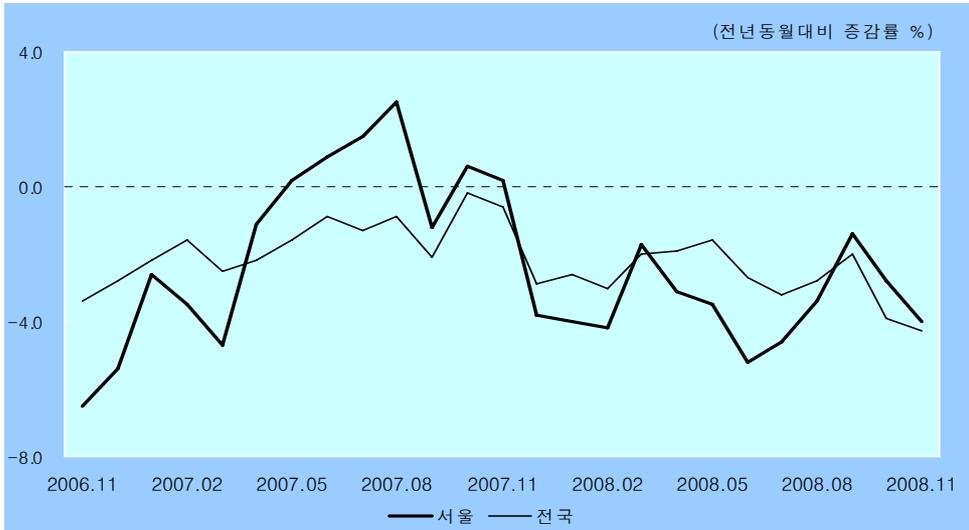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7년	2008					
		11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취업자	전국	1.2 (0.0)	0.6 (0.1)	0.6 (-0.2)	0.7 (-1.2)	0.5 (0.5)	0.4 (0.5)	0.3 (-0.1)
	서울	0.6 (0.0)	-0.2 (-0.2)	-0.3 (0.2)	-0.3 (-0.9)	-1.2 (-0.3)	-1.5 (-0.2)	-1.6 (-0.2)
	남자	1.4 (0.3)	-0.1 (-0.4)	-0.1 (0.4)	-0.1 (-0.7)	-0.5 (-0.7)	-0.8 (-0.3)	-1.4 (-0.3)
	여자	-0.5 (-0.50)	-0.3 (0.2)	-0.6 (-0.1)	-0.7 (-1.1)	-2.1 (0.4)	-2.3 (-0.1)	-1.9 (-0.1)
청년층 취업자	전국	-0.6 (0.6)	-2.7 (-1.2)	-3.2 (2.3)	-2.8 (-2.6)	-2.0 (-1.7)	-3.9 (-0.7)	-4.3 (0.1)
	서울	0.2 (1.0)	-5.2 (-2.1)	-4.6 (2.3)	-3.4 (-1.1)	-1.4 (-0.9)	-2.8 (-2.0)	-4.0 (-0.2)
고령층 취업자	전국	2.6 (0.4)	0.4 (-0.1)	1.8 (-0.9)	1.5 (-0.8)	2.1 (2.1)	2.1 (0.4)	3.3 (-0.9)
	서울	2.5 (-2.1)	0.5 (-2.2)	-0.9 (0.0)	-0.4 (-0.1)	-3.4 (0.7)	-2.0 (-0.7)	-1.6 (-1.2)
	55-59세	2.7 (-1.3)	9.5 (-0.3)	4.1 (-1.8)	5.2 (1.3)	3.2 (-0.3)	0.4 (-1.2)	2.3 (0.5)
	60세 이상	-0.9 (-1.7)	-5.9 (-3.8)	-4.6 (1.5)	-4.7 (-1.4)	-8.0 (1.7)	-3.8 (-0.3)	-4.6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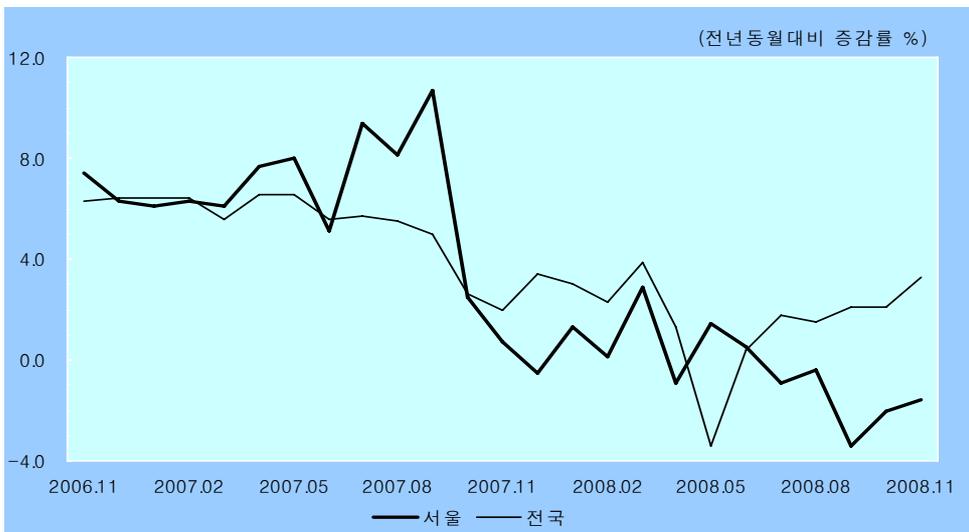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55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농림어업숙련종사자, 사무종사자는 증가, 기능기계조작 및 서비스업 종사자 감소

- 직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사무종사자 43천명(5.6%), 농림어업숙련종사자 0.1천명(2.1%)이 각각 증가하였고,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90천명(-6.5%), 서비스·판매종사자 28천명(-2.2%), 전문·기술·행정관리자 7천명(-0.4%)이 각각 감소

■ 비임금근로자 및 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각각 감소

-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비임금근로자는 1,232천명이고, 임금근로자는 3,66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는 80천명(-6.1%), 임금근로자는 1천명(-0.0%)이 각각 감소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주는 전년동월대비 62천명(-5.5%), 무급가족종사자는 18천명(-9.7%)이 각각 감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45천명(2.4%)이 증가하였고, 임시근로자는 45천명(-3.6%), 일용근로자는 2천명(-0.3%)이 각각 감소

■ 36시간 이상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증가

- 취업시간대별로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0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천명(-2.1%),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4,34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3천명(-1.7%)이 각각 감소
-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1~17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5천명(-2.9%), 18~35시간 취업자는 6천명(-1.7%)이 각각 감소
- 36시간 이상 취업자중 36~53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48천명(5.3%)이 증가하였고, 54시간이상 취업자는 221천명(-13.6%)이 감소

〈표〉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동향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11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산업별	제조업	-9.8 (-8.5)	-4.7 (-2.1)	-6.3 (-2.1)	-9.7 (-5.9)	-5.5 (8.3)	-8.9 (-1.8)	-9.3 (-8.9)
	SOC 및 기타서비스업	2.5 (1.4)	0.5 (0.1)	0.7 (0.6)	1.2 (-0.1)	-0.1 (-1.5)	-0.2 (0.0)	-0.5 (1.1)
	사업·개인·공공서비스	4.5 (-0.7)	-0.6 (1.0)	0.0 (-0.2)	-0.4 (-1.1)	-0.3 (-0.3)	-0.4 (1.3)	1.3 (0.9)
	도소매·음식숙박	-3.5 (2.7)	1.5 (0.3)	2.3 (2.5)	3.7 (0.8)	1.0 (-3.5)	2.1 (-0.4)	-0.9 (-0.4)
	전기·운수·통신·금융	9.7 (6.6)	1.9 (0.0)	-1.6 (-2.8)	1.0 (2.3)	-2.6 (-3.2)	-2.9 (-0.6)	-4.1 (5.3)
	건설업	4.8 (0.5)	1.0 (-3.9)	1.3 (2.2)	0.9 (-0.9)	0.1 (1.9)	-3.3 (-3.4)	-2.1 (1.7)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자	3.2 (-0.9)	-2.5 (0.0)	0.6 (1.8)	-0.5 (-1.0)	-0.8 (0.0)	-2.0 (-1.9)	-0.4 (0.7)
	기능·기계작·조립·단순종사자	-2.1 (-2.5)	-2.6 (-1.3)	-5.4 (-1.2)	-4.2 (-0.3)	-4.8 (0.1)	-5.3 (0.4)	-6.5 (-3.7)
	서비스·판매종사자	3.2 (4.8)	3.6 (-0.1)	1.9 (0.4)	2.3 (0.5)	0.0 (-2.4)	0.1 (0.9)	-2.2 (2.4)
	사무종사자	-3.4 (-1.3)	2.8 (1.3)	3.5 (-0.7)	2.6 (-3.5)	4.3 (2.1)	4.2 (0.5)	5.6 (0.0)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1.5 (-0.7)	1.1 (-0.6)	0.9 (0.5)	0.0 (-2.2)	0.0 (1.1)	-0.6 (-0.3)	0.0 (-0.1)
	비임금근로자	-1.9 (1.9)	-3.7 (1.1)	-3.7 (-0.7)	-1.1 (3.0)	-4.4 (-4.1)	-3.8 (0.2)	-6.1 (-0.5)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실·업·률 |

11월 서울의 실업 전년동월대비 미미한 감소

■ 전국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0.1%p 증가한 3.1% 기록

- 11월 실업자는 75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천명(2.3%)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9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1천명(4.3%) 증가하였고, 여자는 25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천명(-1.4%) 감소
-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3.5%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여자는 2.4%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 계절조정 실업률은 3.3%로 전월대비 포함
- 연령계층별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10대, 30대~50대에서 증가한 반면, 그 외 연령계층에서는 감소
- 실업률은 10대, 30대, 50대에서 상승한 반면, 40대 포함, 그 외 연령계층에서는 하락

■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실업률 0.1%p 감소한 3.8% 기록

- 11월 실업자는 19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천명(-4.9%)이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3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천명(8.4%)증가, 여자는 59천명으로 20천명(-25.5%)이 감소
-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6%로 전년동월대비 0.4%p상승, 여자는 2.8%로 0.8%p 하락

■ 서울의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1.5%p 감소한 59.1%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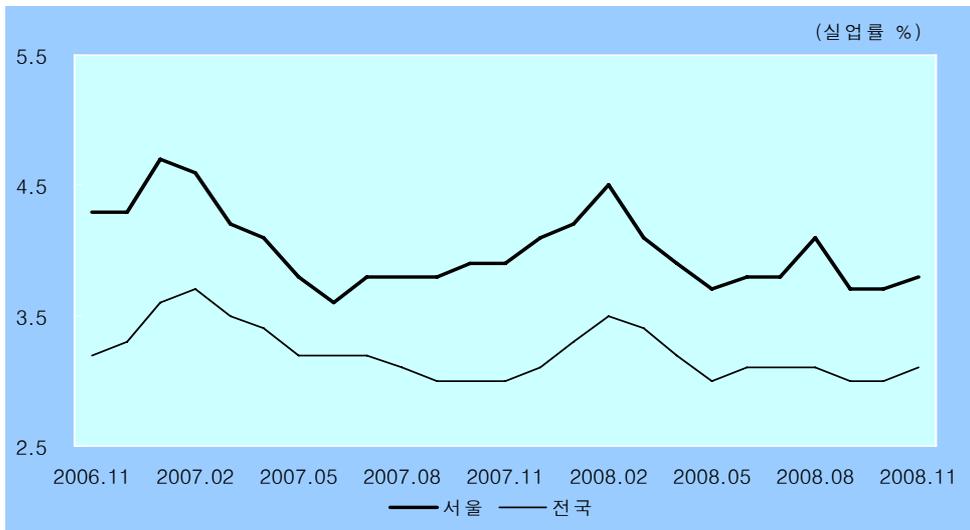
- 서울시 11월 고용률은 59.1%로 전년동월대비 1.5%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9.9%로 전년동월대비 -1.7%p, 여자는 49.1%로 1.3%p 각각 하락

<표> 실업 및 고용 동향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11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실업률	전국	3.0	3.1	3.1	3.1	3.0	3.0	3.1	
	서울	3.9	3.8	3.8	4.1	3.7	3.7	3.8	
	성별	남자	4.2	4.0	4.1	4.3	4.1	4.2	4.6
		여자	3.6	3.6	3.4	3.8	3.1	3.0	2.8
고용률	전국	60.4	60.5	60.3	59.6	59.8	60.0	59.9	
	서울	60.6	60.1	60.2	59.6	59.5	59.3	59.1	
	성별	남자	71.6	71.2	71.4	70.9	70.3	70.1	69.9
		여자	50.3	49.7	49.6	49.0	49.2	49.1	49.0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 건 · 설 · 경 · 기 |

2008년 10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지속적 감소

■ 10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감소(전년동월 대비)

- 전국의 건설수주액은 8,131,837백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3.9% 감소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926,809백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6.8% 감소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전국대비 11.4%를 차지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에서 공공부문은 전년동월대비 251.3% 증가하고, 민간부문에서는 88.3% 감소
- 공공부문은 공기업의 신규 주택 및 사무실 부문의 발주가 대폭 증가, 민간부문은 주택 재개발공사 부문 및 사무실 공사의 발주 감소

■ 서울의 건축허가면적 크게 감소(전년동월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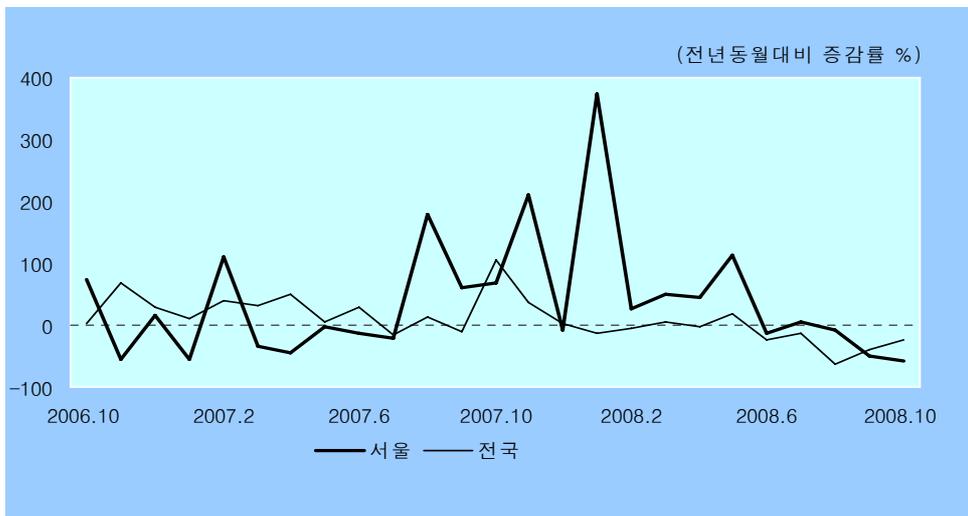
- 2008년 10월 서울의 건축허가면적은 1,912.4천㎡로 전년동월 대비 67.0% 감소
- 주거용 건축허가면적 중 단독주택의 건축허가면적은 전년동월대비 20.8% 감소, 연립주택은 93.4% 감소, 아파트는 99.0% 감소. 전체적으로 전년동월 대비 97.9% 감소
-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의 경우, 전년동월 대비 문교및사회(124.6%) 부문이 증가하였고, 상업(-43.4%), 공업(-68.9%), 기타(-99.2%) 부문 모두 감소

〈표〉 건설수주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7년	2008년					전년동월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10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국	10,735	9,115	5,274	6,084	5,436	8,131	-23.9	49.6	
서울	2,144	1,914	940	845	1,085	926	-56.8	-14.7	
발주 자별	공공	163	74	230	98	75	573	251.3	664.0
	민간	1,967	1,835	709	747	983	229	-88.3	-76.7
공종 별	건축	2,086	1,877	813	815	1,013	874	-58.1	-13.7
	토목	53	27	122	29	61	50	-7.0	-18.0

주: 발주자별 수주액은 국내외국기관, 민자공사 수주액이, 공종별 수주액은 전문공사 수주액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표〉 건축허가면적

(단위: 천㎡, %)

구 분	2007년	2008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10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서울	5,800.5	4,073.2	3,720.3	3,031.9	1,441.2	1,912.4	-67.0	32.7	
주거용	소계	1,853.5	1,839.0	975.7	97.3	68.5	38.4	-97.9	-43.9
	단독	16.8	10.0	15.9	10.8	10.0	13.3	-20.8	33.0
	연립	109.4	8.6	7.4	12.2	1.0	7.2	-93.4	620.0
	아파트	1,726.7	1,820.4	952.4	74.3	57.5	17.9	-99.0	-68.9
비주거용	소계	3,947.0	2,234.2	2,744.6	2,934.6	1,372.7	1,874.0	-52.5	36.5
	상업	2,416.9	1,707.8	1,740.0	2,242.7	1,048.0	1,367.4	-43.4	30.5
	공업	111.4	138.6	1.3	174.4	27.5	34.7	-68.9	26.2
	문교/사회	206.1	321.5	819.2	465.7	289.5	462.8	124.6	59.9
	기타	1,212.1	66.3	184.1	51.8	7.7	9.1	-99.2	18.2

자료: 서울시 건축과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11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하락

■ 11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하락

- 11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대외환경 악화와 실물 경기침체에 따른 매수세 실종으로 부동산 경기가 극심한 부진을 보인 가운데 전월대비 0.4% 하락하여 하락 폭이 확대
- 지역별 매매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축소 또는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서울(-0.5%), 경기(-1.0%) 등 수도권외의 하락 폭이 확대되고 광역시(0.0%)는 상승폭이 축소, 기타지방(-0.1%)은 하락 반전

■ 11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하락

- 서울의 강북지역(-0.3%)은 3년 10개월 만에 하락한 가운데 강북구(0.1%)를 제외한 모든 구에서 하락하였으며 노원구(-0.6%)와 성북구(-0.5%)는 거래 실종에 따른 급매물 증가로, 용산구(-0.5%)는 신규 입주물량 및 매물 증가로 하락
- 강남지역(-0.8%)은 하락 폭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금천구(0.1%)를 제외한 모든 구에서 하락하였으며 강남구(-1.7%), 서초구(-1.6%), 강동구(-1.3%), 송파구(-1.3%)는 신규 입주물량 증가 및 금융부담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으로 하락세를 지속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7.12=100.0,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1월	10월	11월		
전국	99.9	104.3	103.9	4.0	
서울	99.7	106.9	106.3	6.6	
아파트	99.9	105.8	104.9	5.0	
지역별 주택매매	강북	99.5	110.1	109.7	10.3
	강남	100.1	103.7	102.9	2.8

주: 전월대비 증감률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강북 주요 하락지역은 노원구, 성북구, 용산구**

- 강북 지역에서 크게 하락한 지역 중에서 노원구(-0.6%)와 성북구(-0.5%)는 거래 실종에 따른 급매물 증가로, 용산구(-0.5%)는 신규 입주물량 및 매물 증가로 하락
- 강북 지역(-0.3%)에서는 강북구(0.1%)를 제외한 모든 구에서 하락하였음. 광진구(-0.4%), 도봉구(-0.3%), 동대문구(-0.3%), 은평구(-0.3%)도 하락

■ **강남 주요 하락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송파구**

- 강남 지역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8% 하락하여 하락 폭 크게 확대
- 강남구(-1.7%), 서초구(-1.6%), 강동구(-1.3%), 송파구(-1.3%)는 신규 입주물량 증가 및 금융부담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으로 하락세를 지속
- 금천구(0.1%)가 소폭 상승, 관악구(0.0%)와 구로구(0.0%)가 보합세를 나타냄

■ **11월 서울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하락세 유지**

- 서울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11월 28일 기준)은 1,771만원으로 전월(1,801만원)보다 크게 하락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3,236만원), 용산구(2,580만원), 서초구(2,564만원), 송파구(2,302만원), 양천구(1,904만원), 광진구(1,826만원)로 나타났음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에 미달하는 구는 금천구(1,026만원), 은평구(1,083만원), 중랑구(1,131만원), 강북구(1,164만원) 등 순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11월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보다 크게 하락

■ 11월 기준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보다 하락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가을 이사철이 경과되고 실물 경기침체와 불확실성 증가로 이 동수요가 감소하면서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전월대비 -0.3%로 나타나 2005년 1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 수도권(-0.6%)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광역시(0.0%), 기타지방(0.0%) 등 대부분의 지 역에서 상승폭이 축소
-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4% 하락하고,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이 각각 0.2% 하락하며 주택유형 전반에 걸쳐 하락
- 전국의 주택규모별 전세가격은 대형이 0.5% 하락하고 중형이 0.4% 하락, 소형이 0.2% 하락하며 모든 규모에서 하락

■ 11월 기준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크게 하락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7% 크게 하락
- 강북지역(-0.5%)에서는 종로구(-1.0%)가 경기침체에 따른 유동인구 감소로 크게 하락 하였고, 광진구(-0.9%), 중구(-0.8%), 은평구(-0.7%)도 하락폭이 확대
- 강남지역(-0.9%)에서는 송파구(-2.7%), 강동구(-2.3%), 서초구(-2.1%), 강남구(-1.3%) 가 신규 입주물량 증가로 하락세가 심화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2007.12=100.0,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1월	10월	11월	10월	
전국	99.9	103.2	102.8		2.9
서울	99.9	104.0	103.2		3.3
아파트	100.1	102.0	101.0		0.9
지역별 주택전세					
강북	100.0	105.6	105.1		5.1
강남	100.2	102.3	101.3		1.1

주: 전월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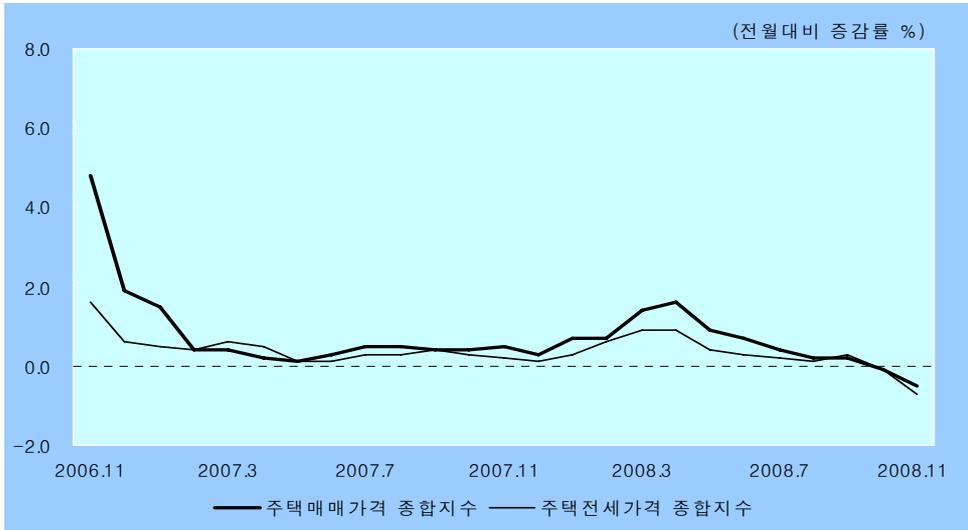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주요 하락지역은 송파구, 강동구, 서초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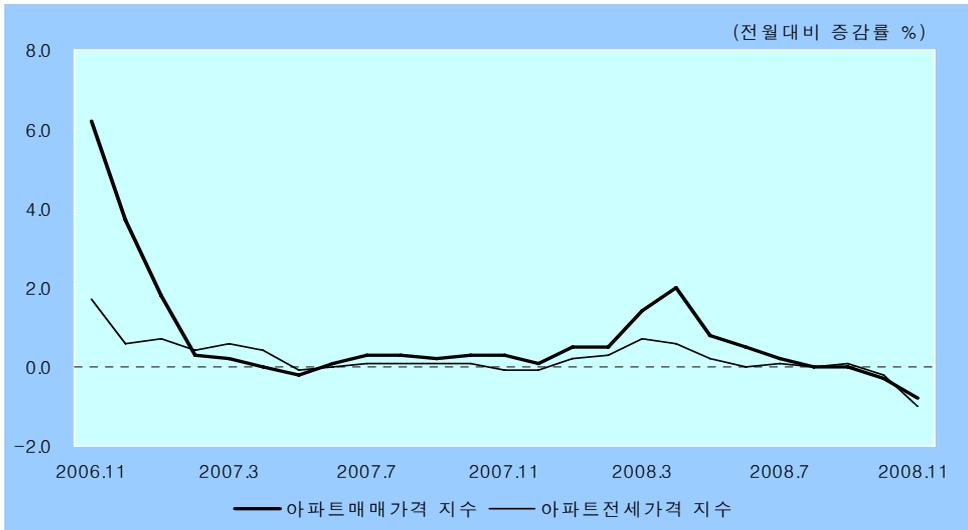
- 강남지역(-0.9%)의 송파구(-2.7%), 강동구(-2.3%), 서초구(-2.1%), 강남구(-1.3%)가 신규 입주물량 증가로 하락세가 심화
- 강북지역(-0.5%)에서는 종로구(-1.0%)가 경기침체에 따른 유동인구 감소로 크게 하락하였고, 광진구(-0.9%), 중구(-0.8%), 은평구(-0.7%)도 하락폭이 확대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하락세 유지

-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2008년 5월 39.8%, 2008년 6월 39.3%, 7월 39.2%, 8월 39.1%, 9월 38.9%로 하락세를 지속하였고 10월과 11월에 모두 38.9%로 9월과 같은 수준 유지
- 서울은 11월에 전국 평균 52.6%보다 13.7%p 낮은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던 전국과의 격차 (1월: 12.0%p, 2월: 12.1%p, 3월: 12.4%p, 4월: 13.1%p, 5월: 13.3%p, 6월: 13.5%p, 7월: 13.4%p, 8월: 13.4%p, 9월: 13.6%, 10월: 13.6%) 폭이 축소되었다가 다시 확대되는 추세
- 지역적으로 보면 그 비율은 강북 41.7%, 강남 36.6%로 10월에 강남과 강북의 격차는 5.3%p이며, 지난 몇 달간 강남북간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내다가 다시 소폭 확대(3월: 8.7%p, 4월: 7.1%p, 5월: 6.4%p, 6월: 5.7%p, 7월: 5.1%p, 8월: 5.0%p, 9월: 5.1%p, 10월: 5.2%)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CD 유통수익률 큰 폭 하락

금리

-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전환
 - 11월 중 국고채(3년)유통수익률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확산 등으로 11월 하순 이후 하락
(08.10월말 4.47% → 11월말 4.87% → 12.9일 4.16%)
- CD(91일) 유통수익률 큰 폭 하락
 - 11월 중 CD(91일) 유통수익률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대폭 인하(-100bp, 10.27일 및 11.7일) 및 유동성공급 확대 조치 등의 영향으로 큰 폭 하락
(08.10.24일 6.18% → 10월말 5.98% → 12.9일 5.44%)
- 11월 기준 장·단기 금리차 폭 축소
 - 11월말 장·단기 금리차는 -0.58%p로 지난달 -1.51%p에 비해 폭이 축소
 - CD 유통수익률이 큰 폭으로 하락함으로써 장·단기 금리차가 지난달 최대치에서 11월에 금리차 큰 폭으로 축소

주가

- 11월 KOSPI 지수 급락세에서 다소 반등
 - KOSPI 지수는 주요국의 금융시장안정경기부양대책 발표, 저가매수세 유입 등에 힘입어 그동안의 급락세가 주춤하는 모습
(08.10.24일 939p → 10월말 1,113p → 11월말 1,076p → 12.9일 1,106p)

■ 11월중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규모가 크게 축소

-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보면 외국인은 순매도 기조를 유지하였으나 전월에 비해 매도규모가 크게 축소
- 기관투자가 및 개인투자자는 순매수 지속
 - 외 국 인: 9월 -3.0조원 → 10월 -4.9조원 → 11월 -1.9조원
 - 기관투자가: 9월 +2.8조원 → 10월 +2.3조원 → 11월 +1.6조원
 - 개인투자자: 9월 -0.3조원 → 10월 +2.5조원 → 11월 +0.5조원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말, 단위: %, p)

구 분	2007년	2008년					전월대비 증감률	
	11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금 리	국고채(3년)	5.77	5.80	5.77	5.74	4.47	4.87	8.95
	CD(91일물)	5.6	5.68	5.79	5.83	5.98	5.45	-8.86
	콜금리(1일)	5.02	4.98	5.22	5.22	4.88	4.00	-18.03
	장단기 금리차 ¹⁾	0.17	0.12	-0.02	-0.09	-1.51	-0.58	-61.59
주 가	KOSPI	1,906.00	1,569.60	1,537.54	1,446.10	1,201.70	1,073.95	-10.63
	KOSDAQ	741.8	536.92	507.14	444.16	348.31	310.48	-10.86
환율 (W/US\$)	921.1	1018.18	1047.11	1136.64	1326.85	1400.81	5.57	

주: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CD

자료: 한국은행

■ 11월 기준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 확대

- 은행의 가계대출은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11.3일 발표)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전월보다 확대 (10월 +1.4조원 → 11월 +1.8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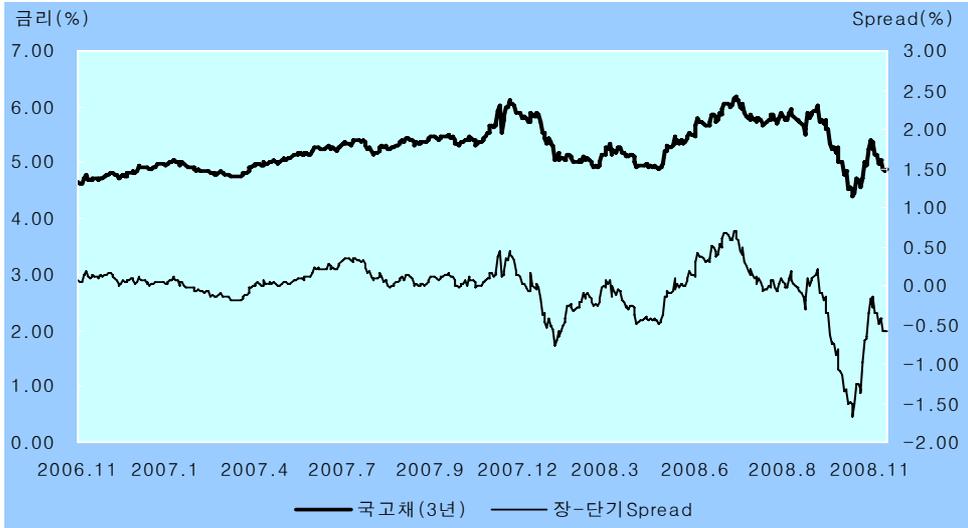
〈표〉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기간 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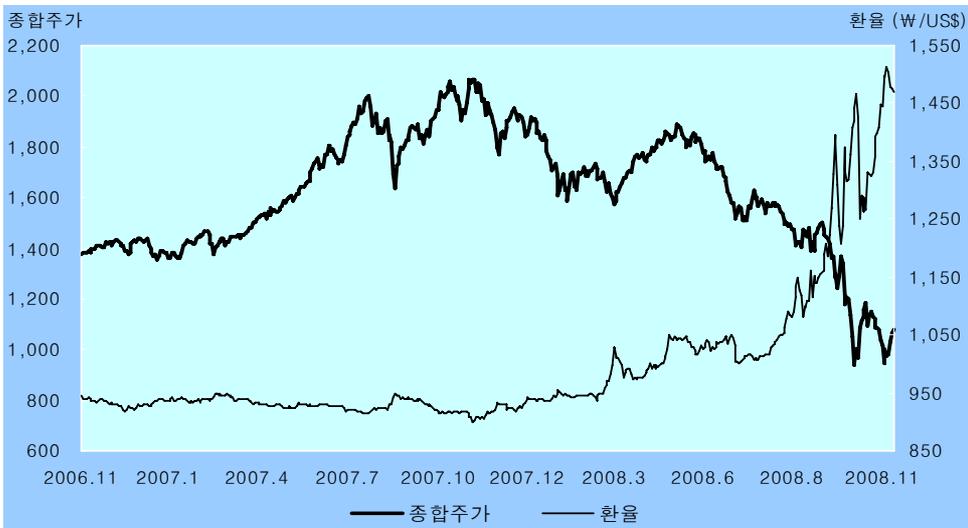
구 분	2007년 연중	2008년					월말잔액		전월대비 증감률
		7월	8월	9월	10월	11월	2008년		
							10월	11월	
가계대출 ¹⁾	17.8	2.5	2.2	2.1	1.4	1.8	385.0	386.9	0.49
주택담보대출 ²⁾	4.6	2.4	1.0	1.7	1.0	1.8	235.6	237.4	0.76
마이เนอร์스통장대출 등	13	0	1.2	0.5	0.4	0.1	147.4	147.5	0.07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10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전월대비 증가

- 10월 전국의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1,198조 8,228억원으로 전월대비 17조 8,318억원 증가
- 10월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494조 5,701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12조 3,626억원 증가

〈표〉 서울시 금융기관¹⁾ 대출금 잔액 추이

(말잔, 단위 : 십억 원)

		2007년	2008년				전월대비 증감액
		10월	7월	8월	9월	10월	
전 국	예금은행	790,358.7	883,185.6	891,376.3	900,567.8	913,084.4	12,516.6
	비은행기관	249,303.4	274,472.4	278,008.3	280,423.2	285,738.4	5,315.2
	합계	1,039,662.1	1,157,658.0	1,169,384.6	1,180,991.0	1,198,822.8	17,831.8
서 울	예금은행	333,662.8	385,865.6	390,593.6	396,236.5	405,074.2	8,837.7
	비은행기관	78,134.0	84,929.9	85,777.1	85,971.0	89,495.9	3,524.9
	합계	411,796.8	470,795.5	476,370.7	482,207.5	494,570.1	12,362.6

주: 1)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합한 예금취급기관 기준, 생명보험사 및 증권금융은 제외됨

■ 10월중 서울의 예금은행 예대율 상승

- 서울의 10월 중 자금의 지역환류도를 나타내는 예대율(총대출금잔액/총예수금잔액)은 10월보다 0.2%p 증가한 61.4%를 기록
- 전국적인 예금은행 예대율은 몇 달째 연속적인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전월보다 0.9%p 하락하여 87.6%를 기록

〈표〉 지역별 예금은행 예대율¹⁾ 추이

(단위 : %, %p)

	2007년	2008년				전월대비 증감
	10월	7월	8월	9월	10월	
전 국	87.6	89.5	88.5	88.5	87.6	-0.9
서 울	58.1	61.4	61.2	61.2	61.4	0.2

주: 1) 총대출금(금융자금대출+재정자금대출)/총예수금(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CD+금융채), 2002년부터 산업은행 포함

| 창·업·동·향 |

10월 기준 서울 신설법인 수 증가

■ 전국 신설법인 수 전월대비 증가

- 10월 전국의 신설법인 수는 3,975개로 미국발 금융악재로 인한 글로벌 신용위기 확산 등의 대외악재와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3.5%(620개) 감소
- 전월에 비해서는 계절적 요인(9월: 명절)으로 8.3%(304개) 증가

■ 서울 전월대비 신설법인 대폭 감소

- 10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425개로 전년동월대비 15.2%(255개) 감소하였고, 전월대비 10.4%(134개) 증가

■ 서울 모든 업종에서 신설법인 수 감소

- 미국발 금융악재로 글로벌 신용위기 확산 등의 대외악재와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크게 감소
- 전월대비 건설 및 설비업은 17.3%(17개) 감소하였으나, 제조업은 31.1%(38개), 서비스업은 10.8%(115개) 증가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분	2007년	2008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10월	7월	8월	9월	10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4,595	5,006	3,713	3,671	3,975	304	8.3	-620	-13.5
서울	1,680	1,794	1,406	1,291	1,425	134	10.4	-255	-15.2
서비스업	1,333	1,466	1,134	1,069	1,184	115	10.8	-149	-11.2
제조업	159	168	140	122	160	38	31.1	1	0.6
건설 및 설비업	186	157	123	98	81	-17	-17.3	-105	-56.5

자료: 중소기업청

| 어 · 음 · 부 · 도 · 율 |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보다 상승

■ 전국 어음부도율 전월보다 상승

- 10월 전국의 어음부도율(전자결제조정후)은 0.03%로 전월(0.02%)보다 증가
-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321개로, 전월(203개) 보다 118개 증가
-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이 각각 43개, 16개, 59개씩 증가

■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보다 증가

-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2%로 전월 0.01% 보다 0.01%p 증가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111개로 전월보다 31개 증가하였으며, 지방도 123개에서 210개로 전월보다 87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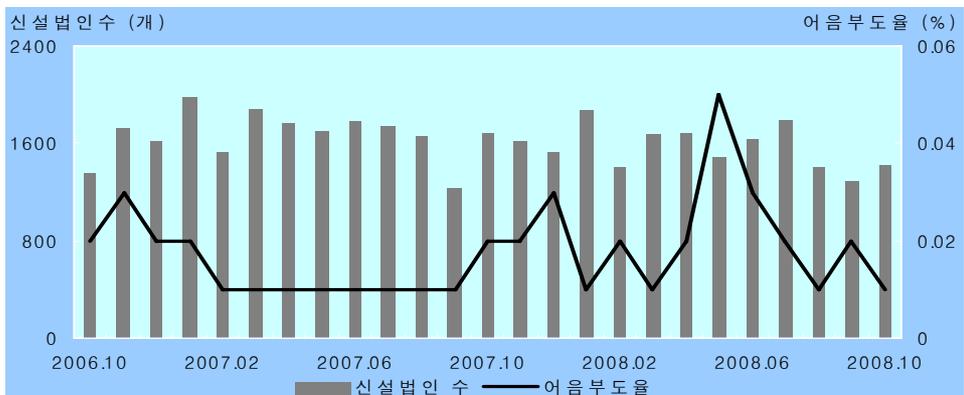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단위: 개소, %, %p)

구 분	2007년	2008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10월	7월	8월	9월	10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어음부도율	0.03	0.02	0.02	0.02	0.03	0.01	50.0	0	0.0
	부도업체 수	258	209	178	203	321	118	58.1	63	24.4
서울	어음부도율	0.02	0.01	0.02	0.01	0.02	0.01	100.0	0	0.0
	부도업체 수	78	80	73	80	111	31	38.8	33	42.3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입자료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11월 소상공인 보증 비중 감소

■ 건당평균금액의 증가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은 11월 중 3,888건, 63,816백만원 공급하여 전월대비 건수는 3.1%감소하고, 금액은 10.2% 감소
- 1천만원 이하 소액보증의 감소 및 2008년 서울시 자금 소진 등으로 신용보증 건수 및 금액 모두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월대비 건수 및 금액은 증가

〈표〉 월간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원, %p)

구 분	2007년	2008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11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건수	978	5,260	4,304	4,158	3,971	3,888	-83	-3.1	2,910	297.5
금액	31,303	69,452	60,928	69,917	71,059	63,816	-7,243	-10.2	32,513	103.9
건당평균금액	32.0	13.2	14.2	16.8	17.9	16.4	-1.5	-8.3	-15.6	-48.7

주: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전월수준의 업종비율 유지

- 11월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은 10월 대비 뚜렷한 변화는 없으나 제조업(1.4%p), 도·소매업(1.9%p)은 소폭 증가하고 음식·숙박업(1.2%p), 서비스업(0.5%p) 및 기타업종(1.8%p)은 소폭 감소하여 제조업 및 도·소매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표〉 월간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건수	235	1,313	887	713	740	3,888
비율	6.0	33.8	22.8	18.3	19.0	100
금액	6,396	22,387	12,440	12,094	10,499	63,816
비율	10.0	35.1	19.5	19.0	16.5	1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의 비중(금액기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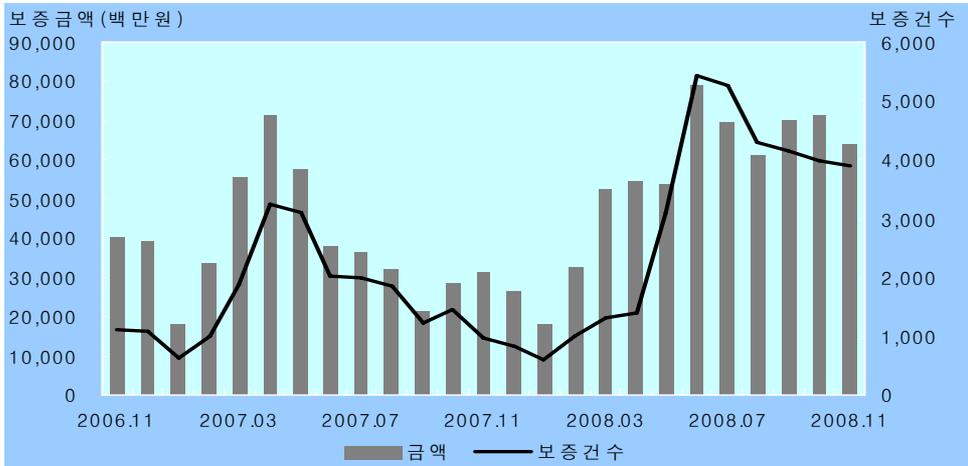
- 「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의 시행과 함께 증가하던 소상공인의 비중(금액기준)이 3개월 연속 감소하여 85.3%를 나타냈으며, 이에 따라 11월에는 소기업 및 중기업의 비중이 늘어남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p)

구분		2008.09	2008.10	2008.11	전월대비증감
소상공인	건수	4,000	3,821	3,730	-91
	비율	96.2	96.2	95.9	-0.3
	금액	59,937	62,041	54,414	-7,627
	비율	85.7	87.3	85.3	-2.0
소기업	건수	115	126	125	-1
	비율	2.8	3.2	3.2	0.0
	금액	6,606	7,090	6,780	-310
	비율	9.5	10.0	10.6	0.6
중기업	건수	43	24	33	9
	비율	1.0	0.6	0.8	0.2
	금액	3,374	1,928	2,622	694
	비율	4.8	2.7	4.1	1.4
합계	건수	4,158	3,971	3,888	-83
	비율	100	100	100	0
	금액	69,917	71,059	63,816	-7,243
	비율	100	100	100	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

| 수 · 출 · 입 · 동 · 향 |

서울의 수출입 전년동월 대비 감소

- 전국 전년동월대비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
 - 11월 전국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9.0% 감소한 290.2억달러, 수입은 14.9% 감소한 288.8억달러를 기록
 - 세계경기침체 및 소비수요 급감으로 수출, 수입 모두 두 자릿수의 감소세
 - 글로벌 금융위기가 선진국 경기침체와 개도국의 성장둔화로 확산되어, 중동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의 수입수요가 급감하는 추세
- 선박을 제외한 모든 품목 수출감소세 기록
 - 무역수지가 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은 유가, 원자재가 하락 및 국내 수입수요 감소에 기인
 - 원유는 도입단가 하락의 영향으로 15개월 만에 수입액이 두 자릿수의 감소세 기록
- 11월 기준 서울 수출과 수입 전년동월 대비 감소
 - 11월 서울의 수출은 23.7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5.1% 감소하였고, 수입은 55.9억달러로 12.8% 감소
 - 서울의 수출은 전월대비 18.8%, 수입은 25.1% 감소하여 수입의 감소 폭이 수출보다 큼
- 11월 기준 수출 1순위는 편직물, 수입 1순위는 반도체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편직물이 168,362천 달러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반도체, 철강관 및 철강선, 컴퓨터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반도체가 가장 많아 512,434천 달러에 달하였으며, 다음은 컴퓨터, 항공기 및 부품, 의류 등 순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수출의 경우 철강관 및 철강선이고 수입의 경우 LPG로 나타남

〈표〉 수출입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07년		2008년			전년동월비		(전월비)		
		11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수출	35,808	41,093	36,789	37,591	37,370	29,015	-6,793	-19.0	-8,355	-22.4
	수입	33,926	43,029	40,601	39,650	36,158	28,877	-5,049	-14.9	-7,281	-20.1
서울	수출	2,496	3,113	2,567	2,780	2,916	2,368	-128	-5.1	-548	-18.8
	수입	6,410	8,348	7,986	8,009	7,465	5,588	-822	-12.8	-1,877	-25.1

주: (전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출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7년 11월		2008년 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편직물	184,807	3.6	168,362	-8.9
2	반도체	204,652	14.3	125,114	-38.9
3	철강관및철강선	7,635	49.6	108,799	1325
4	컴퓨터	81,863	0.9	104,731	27.9
5	자동차부품	108,648	20.8	101,710	-6.4
6	무선통신기기	87,540	0.7	97,742	11.7
7	고무제품	101,200	10.3	83,824	-17.2
8	자동차	61,907	59.1	83,539	34.9
9	의류	101,172	-30.7	73,878	-27
10	합성수지	114,852	35.1	69,083	-39.9
	합계	2,496,255	13.9	2,368,498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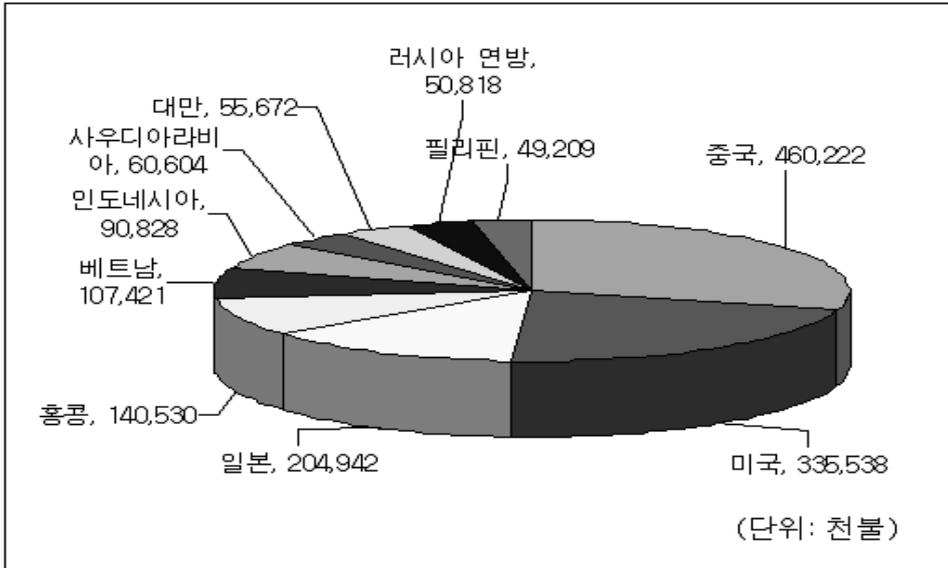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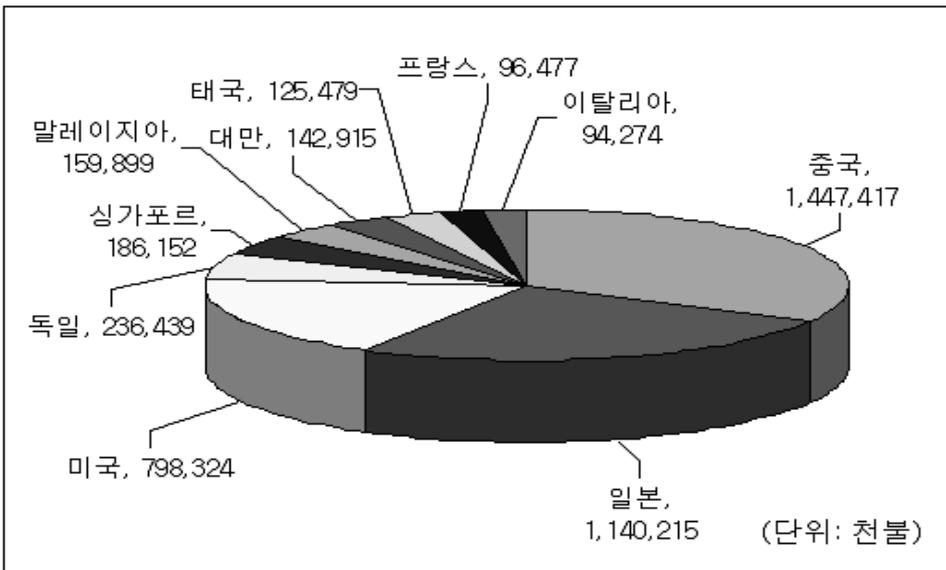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7년 11월		2008년 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반도체	464,317	37.5	512,434	10.4
2	컴퓨터	402,906	-4.8	350,185	-13.1
3	항공기및부품	282,794	25.5	237,897	-15.9
4	의류	270,379	37.1	203,142	-24.9
5	선박해양구조물	48,193	-56.9	163,500	239.3
6	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장비	2,437	-	151,229	6104.9
7	철강판	141,838	126.9	148,513	4.7
8	LPG	0	-	136,584	-
9	석유제품	207,849	95.3	129,660	-37.6
10	자동차	268,901	19.2	122,785	-54.3
	합계	6,409,973	21.7	5,588,164	-12.8

자료: 무역협회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출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입